

“함께 걸으며 복음을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느님,
당신의 자비를 본받아
저희도 서로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소서.
무심함과 거리감을 넘어 마음을 열고
외로운 이들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게 하소서.

삶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신 예수님,
저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참된 경청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쁨에는 함께 웃고, 슬픔 앞에서는 곁을 지키는
진정한 벗이 되게 하소서.

새 힘을 일으키시는 성령님,
돌봄이 미치지 못해 어려움 속에 머무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어,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의 품으로 이끄는
참된 돌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관계의 회심을 살아 복음의 생명력을
새롭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함께 걸으며 복음을 살아갑시다.”

- 관계의 회심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



2026년 사목방향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과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향한 세대 간 신앙의 연대 위에, 우리 교구는 ‘관계의 회심’을 중심에 두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생명력을 다시 일깨우는 길로 나아갑니다.

관계의 회심이란

하느님을 새롭게 만남으로써 삶의 모든 관계가 복음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변화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이며, 그 은총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으로 서로를 만나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관계의 방식

하느님께서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필요와 믿음을 경청하시며, 상처와 삶의 무게를 돌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갑시다.

- ✓ 다가감 - 떨어진 이에게 먼저 손 내미는 용기
- ✓ 경 청 - 지금 함께한 이에게 마음을 열어 귀 기울이는 사랑
- ✓ 돌 보 - 혼자 지고 있는 짐을 함께 나누는 연대

이 세 흐름이 하나로 이어지는 복음적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 구성원 모두의 관계가 새로워지며, 교회 공동체는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실천사항

다가감 경 청 돌 보

교 구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 돌봄가 양성 프로그램 실행
- 위기의 영혼 방문

본 당

하느님의 집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 '성령 안에서 대화' 방식 이용
- 취약 가정을 위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

사 제

동반자이자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

- 찾아가는 사목
- 아픔 경청

평 신 도

서로의 벗이 되기 위하여

- 먼저 다가감
-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작은 돌봄 실천

• 위 표를 참조하여 본당별로 실천사항을 설정하셔도 좋습니다.